

사설

'1사찰 1홈페이지' 기대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 그 중심에 인터넷이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일이다. 당연히 인터넷을 통한 포교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포교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 스님들이 '인터넷 불교모임'을 만들고, 1사찰 1홈페이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은 인터넷 포교에 한발 뒤편이 있는 불교계로 보아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가 '인터넷 불교모임'의 이러한 취지에 적극 지원을 결정하고 홈페이지 자동생성기를 제공하며, 후속적인 여러 지원을 약속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손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운동이 구호만이 아닌 현실성을 지니게 하는 힘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전국 사찰의 홈페이지가 각각 그 고유한 내용을 갖추게 된다면, 미래세대들이 기존의 불교에 지니고 있던 거리감을 극복하고 쉽게 불교를 접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각 사찰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요소들을 알림으로써 전통문화, 불교문화의 계승과 전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래 불교에 밝은 전망을 던지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스님들이 현대적 정보 매체를 통한 포교의 중요성에 더더욱 눈을 뜨고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아직까지 많은 스님들이 현대적 방식의 포교에 대해 어둡거나, 일종의 저항감마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빨리 이러한 요소들을 떨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늘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며, 한꺼번에 대량의 고통을 생산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구시대적인 포교를 고집하는 것은 불교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찰 홈페이지 갖기 운동이 확산되어 불교계에 커다란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진정 인도라망이라 할 수 있는 커다란 그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원력으로, 한때의 바람이 아닌 지속적인 확산을 이룩하는 큰 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보수는 완벽하게

본말을 뒤집으면 언제나 재앙이 온다. 너무 거창한 말부터 해서 비약일지 모르지만 명심해야 하는 말이다. 한때는 문화재를 보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격정부터 앞세웠다. 본말이 전도된 보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보 15호인 봉정사 극락전의 건물 일부가 금이 가고 침하 현상이 계속되면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어떻게 보수를 했기에 붕괴의 위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싶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목조 건물인 봉정사 극락전의 보수 역사를 보면, 1363년 고려 공민왕 때 1차 보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1625년 조선 조 인조 때 두 차례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최근에는 1972년 전면해체 보수공사를 한 이래 지금에 이른 것이다. 1, 2차 보수공사를 했던 기간에 비하면 30년도 못되는 기간이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다.

본래의 모습대로 보수하지 않았던 것이 붕괴위험을 초래한 가장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래 건물

에서는 한 겹이면 처마를 한 겹 더 얹어 보수를 함으로써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이질경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왜 원형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면서 보수 아닌 보수를 할까, 그런 의문이 집요하게 든다. 몰라서 그렇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일이고, 자문을 받아서 했다면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더욱 신중히 연구로 원형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본말을 뒤집으면 재앙이 온다는 말로 원형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뜻은 보수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거나 대충대충 공사로 얼버무리려는 속성을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여러 사찰의 문화재에 대한 보수, 복원이 예정돼 있다. 지금 우리들이 명심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서두르지 말고 촘촘히 연구하고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원형을 훼손하는 문화재의 보수는 문화재의 파괴나 다름없다.

승가고시·법계 10월 시행

조계종 승가교육위 발족...진흥위원장 법장 스님 선출

올해 10월부터 승가 재교육 및 법계제도 시행된다. 승가 교육제도의 시행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10월 3급 승가고시 및 4급 중대법계 품수뿐 아니라 1·2급 승가고시를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실시 방안을 마련할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법장)가 1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의 발족은 △일반 승려에 대한 교육 체계 개선 및 수립 △법계 시행을 통한 승가 위계 확립 △전법 인력 양성을 통한 포교 역할 제고 △체제적 교육을 통한 교역직 중무인 양성을 위한 승가고시 및 법계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1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진흥위는 또 재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신하에 △제도 개선 분과 △중대법계정분과 △사업 심의 분과 △교수 분과를 두고, 종단 교육 사업의 목표 수립 및 교육 주제 역량 형성, 제도 및 법령 제정, 교육 시행의 검토 및 방안 수립 등 재교육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진흥위는 올해 사업으로 포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특강, 3급승가고시 시행 방안 공청회, 재교육 승가고시 법계 시행 관련 중대법계 정, 95년 출가자 교육, 전문 특수 재교육 개선 안 확정 등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군내 민간성직자 양성화

국방부 관리규정 추진

군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그동안 일선 부대의 필요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온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종실은 군 부대수에 비해 군종장교 수가 부족해 원활한 종교활동이 어려운 현실을 해

결하기 위해 지난월부터 '민간성직자 관리규정(안)'을 만들어 각 종교계에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관리 규정의 일부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국방부 군종실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법사의 수가 기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계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규정이 시행되면

포교사단 군포교팀, 군불교진흥회, 군불교어머니회 등 군포교 단체 회원들의 군내 출입문제가 해결되고, 군법사가 없는 법당의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 군종실이 활동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민간인 성직자는 현재 개신교 473명, 천주교 13명, 불교 79명 등 개신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규정안에 종교평형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통도사 총회의원 태봉스님

조계종 15교구 본사 통도사 중앙총회의원 보결선거에서 태봉스님이 당선됐다.

태봉스님은 60년 율하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72년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창녕포교당 주지, 총무원 규정부 조사과장, 통도사 교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98년부터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관장을 맡고 있다.

정성운기자

포교사단 '황금어장' 결실

출범후 불자장병 5~10배 늘어

포교사단이 출범후 1년 동안 주력 포교 대상으로 삼아 전개해 온 군포교활동이 법당별로 5~10배에 이르는 포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금촌 호국 백일사의 경우 당초 40여명의 장병들이 자제적으로 법회를 운영해 오다 지난해부터 군포교팀이 법당을 관리하면서 6개월만에 300여명의 장병들이 법회에 나오는 등 포교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이 11일 밝힌 포교사단 군포교팀이 11일 밝힌 포교사단 군포교팀이 56개 군 법당에서 6,000여명의 불자장병들에게 불심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년 간 150명의 군포교 담당 포교사들이 분담한 군 포교 비만도 1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병 1인당 24,200의 경비가 소요된 것이다.

특히 포교사들이 활동 중인 이들 법당들은 모두 군법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포교사단 군포교팀이 군 불교 활성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포교 활동과 팀별로 조직과 팀워크 그리고 소요 경비와 역할의 분담을 통해 매우 정기법회 개최, 장병 신행지도, 찬불가 및 수행 지도, 레크리에이션 실시, 간식 지원, 수계법회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 등이 꼽혔다.

포교사단이 포교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법당운영 및 포교비 부족, 법당에 나오는 장병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포교비를 전액 스스로 부담하는 포교사들은 경비조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사단 하영태국장은 "군법당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군법사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빈 법당이 많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포교사들이 더욱 활발한 군 포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이고 실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외국인안내 담당 7개사찰 첫 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대행 상운)은 1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조계사 봉은사 불국사 통도사 송광사 동화사 한가람선원 등 7개 사찰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1차 외국인안내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포교원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국외국인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합회를 결성한 뒤 광역시도 단위별 1개 사찰에 외국인 안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부대변인(장전행)이 기자들에게 말을 전하며 자기 생각을 가미해 큰 눈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정대스님은 이날 "성직자는 '눈치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회창 총재 관련 발언은 소신'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관련기사 1면)

정성운기자

'단일계단 20년사' 나와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보성, 송광사 방장)는 1일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단일계단 수계산림 20년 역사를 집대성한 <단일계단 20년사>를 편찬했다.

<단일계단 20년사>에는 역대 전계화상, 2사7중, 비구계, 특별구족제, 사미계, 비구니회상, 비구니 2사7중, 비구니계, 특별비구니계, 식차마나니계, 사미니계 수계식 사진과 20년 역사, 수계산림 임원 명단과 장소 일시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김원우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열린 마음으로...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

#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개원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을 개원하오니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원일자 :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4월 20일(금) 오후 2시
- 개원장소 :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8층 대법당
- 문의처 : 사무국 ☎(051)868-0951

**고문** 지관스님(전 동국대학교총장, 가산문화원 이사장)  
보성스님(송광사 조계총림방장)  
정관스님(전 범어사주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벽파스님(전 범어사주지,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련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스님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혜총스님

■ 후원 : 부산불교연합회,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사회복지법인 내원,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청소년법인 내원청소년단, 청소년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자문위원 김용택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기형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혜도스님(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소장(종교사회복지연구소)  
이은희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원장 혜총스님(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부원장 박경일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운영위원 범산스님(양정청소년수련관장), 정여스님(개암사회복지관장)  
지현스님(두송종합사회복지관장), 지일스님(합지골청소년수련원장)  
명현스님(공창종합사회복지관장), 임광수(낙동종합사회복지관장)

일간 인터넷 불교신문  
Buddhanews.com